

**Therapeutic use of percussion instruments  
for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s  
-- Case studies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

Han Jee hyun, Samju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effect of musical activities on children's aggressiveness using percussion playing through case studies and to present the therapeutic programs. Musical activities using percussion playing were organized for three aggressive children. Twenty-one small group sessions were conducted over seven weeks with 30 minutes given each session. Fourth-grade children involved in using Aggressiveness Measuring Tool for Teachers-revised by Gwak Geum-Joo(1992) was selected for case studies. Children's impulsiveness was also tested through self-test measuring tool for impulsiveness-revision of 16 questions used by Cho Hae Yeon (2001) and Lee Joo Shik (2003). As quantitative method, comparative analysis was made between the pre and post test results using measuring tools for aggressiveness and impulsiveness of children as well as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occurring in the initial stage of the first three sessions and in the latter stage of the last three sessions. Qualitative method was used at the same time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ussion playing on children.

After the musical activities, child A showed reduced Aggressive Measuring Tool scores from 19 to 18, with child B from 23 to 19 and child C from 21 to 18. The results show that occurrence of aggressive behaviors were lowered in the post test. Impulsiveness Measuring Tool scores in the post test were decreased as well in all three children. During the music therapy programs,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frequency of the target behaviors in all three children has reduced more in the latter stage than the initial stage of music therapy. The qualitativ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ildren experienced releasing stress through self-expression after percussion play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using on percussion playing in reducing aggressiveness of children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percussion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aggressive children. These results can be adapted and reapplied by teachers in primary schools to approach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and can present a useful therapeutic approach to therapists practicing in clinical environments.

**[keywords] Aggressive Children, Percussion Instruments, Music Activity,  
Target Behavior, Music Therapy**

##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의 사례연구-

한 지 현, 삼정 초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치료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7주에 걸쳐 총 21회 소그룹 세션을 실시하였고 각 세션은 30분으로 구성하였다. 공격성 아동의 선정은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광금주(1992)가 다소 수정하여 만든 교사평정용 공격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성 점수가 높은 아동 3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조혜연(2001)과 이주식(200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16문항의 자기 질문식 충동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충동성 검사도 함께 사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례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도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와 함께 음악활동 개입 후 치료 초기(1~3회기)와 후기(19~21회기)의 공격적 행동발생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비교 분석 하는 양적인 연구와 타악기 연주활동이 아동에게 미친 반응을 관찰 기록하는 질적인 연구를 동시에 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격성 측정도구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례아동 A는 19점에서 16점으로, 사례아동 B는 23점에서 19점으로, 사례아동 C는 21점에서 18점으로 낮아졌으며 충동성 측정도구의 사후검사 점수도 사례아동 3명 모두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변화도 음악치료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례아동의 질적 연구결과는 타악기 연주활동 후 자기표현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라는 감정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적·질적 분석의 결과들은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사례아동에게 공격성 감소라는 치료적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타악기가 공격성 아동을 위해 유용한 치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공격성 아동, 타악기 연주, 음악활동, 목표행동, 음악치료

대중매체의 발달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사회의 아동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영화, 전자오락 등의 대중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폭력매체에 의한 공격행동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아동은 핵가족화 된 구조 속에서 가족 간의 대화부족, 또는 과잉보호나 방임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르며, 그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한 채 고립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면서 공격성을 가정과 학교에서 빈번하게 표출하고 있다(심승원, 2001). 이러한 아동들에게서 보이는 공격성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며 친구관계, 학업성취, 사회적응력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적인 행동장애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미영, 1998).

공격성의 정의는 다양한 방법들로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성과 공격행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두 가지 접근 방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데, 하나는 관찰 가능한 특성 및 행동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므로 Feshbach(1983)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공격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하나는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것으로 Aronson(1980)은 공격성을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공격성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공격성과 충동성은 그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은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충동적인 아동이 보이는 특성은 만족을 지연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도 고려하지 못한다. 또 한 일에 대한 마무리도 미비하여 사고 과정에 있어서도 분석적이지 못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한다(김혜정, 1992). 일반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공격성을 보이고 있으나, 정상아의 경우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감소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성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사회성 발달이 미약하다(Patterson 와 Mischel, 1976). 또, 공격성은 과다행동, 산만 행동 등과 함께 나타나며, 비행, 도덕 판단 결핍 등과 같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 활동 기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음악활동의 개입과 집단 음악활동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음악이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서경아, 1995; 이수진, 2002; 장호정, 2002). 음악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음악은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Session(1981)은 음악은 정서들의 기초를 이루는 에너지의 질을 표현하는 도구로 긴장이나 이완, 안정이나 흥분을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았다. 정현주(2005)는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감상을 하면서 정서가 자극되고 연주를 하면서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에너지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음악이 인간적인 본능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때 표현되는 음악은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포함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격적 성향의 아동들로 하여금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분노를 타악기연주로 에너지 표출을 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중요한 치료적 매개체로써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치료적 매개체로서의 음악적 경험은 악기나 음성으로써 소리를 내어 연주하거나 그것을

듣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감각·운동·지각·인지·정서·생리반응·행동·대인관계 등 다양한 기능영역이 서로 연루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험을 일으킨다.(김미진, 1997). 감상과 연주를 통한 음악적 경험은 어떠한 개별적인 동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동작과 활동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어떠한 음악적 활동이든 공통적으로 내재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식-흥분-접촉이라는 특정한 주기를 갖는데 먼저 음악적 감각과 함께 인식의 주기가 시작되고 인식은 에너지를 동원시켜 심리적, 신체적 감각을 경험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내재된 욕구나 필요를 충족하도록 이끈다(정현주, 2005). 따라서 공격성 아동의 악기연주를 통한 음악적 경험은 인식과 기능의 모든 수준에서 음악적·비음악적으로 의사소통, 인지발달, 자아표현 등을 자극하는 음악적 표현의 수단이 된다(전현선, 2002). 또한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공격성 아동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그러한 감정을 타인과 더불어 표현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감각적 행동을 종합, 조절, 변형시킬 수 있다(이수진, 2002).

또한 음악은 자기표현과 긴장감 해소의 특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그룹 안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류로 이어지게 된다. 공격적인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 그리고 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동료들 사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Coie 와 Kupersmidt, 1983; Dodge, 1983). 즉, 동료관계에 있어 이들은 고립되고 자기표현에 있어 공격적이 되거나 소극적이 되어 반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아동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중요한 음악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아동이 모든 악기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드럼과 같은 타악기를 사용한다. 탬버린을 함께 흔드는 것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타악기를 치는 행동은 리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손이 스스로를 지배하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자아 체험을 하게 해준다(김태련 외, 1994). 즉 타악기의 리듬연주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써의 자아표현에 필요한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의 활동 영역 중에서 타악기 연주는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공격적인 아동의 분노를 표출하도록 이끌어주며 아동을 음악활동 안으로 몰입 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적 활동이다(전현선, 2002).

악기를 치료에 사용하는 본질적인 측면은 그것이 정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표현의 배출구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Boxill, 1985). Gardstorm(1999)은 음악은 불안, 분노, 적의와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출구로서 음악을 통해 신체와 목소리,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격렬한 외부적 폭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수진, 2002 재인용). 아동은 외현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공격충동을 언어적으로 발산하기도 한다. 이런 잠재된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게 해줌으로써 음악이 치료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공격성 아동의 억압된 감정을 악기 연주하기의 음악활동으로 에너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여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치료적 양식은 정서를 자극하고 이완시켜 부적절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격성 아동의 사례연구를 통해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공격성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및 질적 자료를 통해 그 효과성을 보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하고 있는 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아동으로 남학생 3명이다. 이들의 선정 방법은 4학년 한 반당 40명 정도로 구성된 5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사평가를 통해 선정하였다. 각 반 담임선생님들로 교사 평정용 공격성 측정 검사 질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검사하게 한 후, 각 반 아동들 중 검사 점수가 가장 높은 세 명을 연구에 참여하도록 추천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에게 음악활동 개입 전 충동성 검사를 실시하여 음악활동 개입 후 이들의 충동성 변화도 측정하였다. 다음은 대상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사전 점수이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사전 척도검사 결과

이름	공격성 측정 점수	충동성 측정 점수
A	19	65
B	23	70
C	21	56

#### (1) 사례 아동 A

본 연구자에 의해서 관찰되어진 A는 음악 진단 시 행동 영역에서 신체적 기능에는 이상이 전혀 없었으나 음악활동 중에 동료와의 시비로 인한 공격적 행동이 많았다. 인지 영역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서는 집중력을 보이며 흥미를 갖지만 음악적 과제 수행에 집중력이 짧고 충동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 A는 동료에게 시비를 걸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공격적인 행동특성으로 인해 동료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보였다. 언어 영역에서도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 (2) 사례 아동 B

본 연구자에 의해서 관찰된 B는 음악 진단 시 행동 영역에서는 신체적인 기능 이상은 없었으나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등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자주 발생하였다. 인지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는 매우 좋아했으나 음악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으며 그로인해 과잉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 B는 옆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며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잦은 다툼을 하여 동료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보였다. 언어 영역에서는 보통 아동보다 문장이 짧고 표현이 단순하였고 레슬링 같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 관심을 보이거나 흥미를 가지면서 대답을 잘하지만 그 외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네, 아니요' 등으로 짧게 의미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다른 동료와 싸울 때 공격적인 언어사용이 빈번하였다.

#### (3) 사례 아동 C

본 연구자에 의해서 관찰되어진 C는 음악진단 시 행동 영역에서는 신체적 기능 이상은 없었으나 다른 아동과의 잦은 다툼으로 공격적인 행동 특성이 자주 나타났다. 인지 영역에서는

학원교육으로 인해 음악적으로는 잘 따라오나 그 안에서의 활동은 집중력이 짧아 흥미를 쉽게 잃었다. 사회적 영역에서 C는 음악 활동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르거나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싸움을 자주 하여 동료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워보였다. 언어 영역에서도 욕이나 비어의 사용이 빈번했으며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를 폭력적인 가사로 바꾸어 부르는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위한 단일대상 연구이며 공격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타악기 연주중심의 음악활동 개입에 따른 공격행동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기간 동안 교사평정 공격성측정 도구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와 충동성 측정 도구의 사전-사후 검사의 변화, 그리고 음악치료 초기(1~3회기)와 후기(19~21회기)의 공격성 아동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양적인 연구와 함께 7주 동안 이루어진 21회의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활동이 아동에게 미친 반응을 관찰 기록하는 질적인 연구를 동시에 설계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 장소는 부천시 S초등학교의 음악실로 피아노와 그 외에 다양한 타악기와 리듬악기가 구비되어 있는 독립된 곳으로서 본 연구자와 대상아동 3명이 복과 장구 등의 다양한 타악기 연주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 연구기간은 2005년 3월 21일부터 2005년 5월 6일까지 7주 동안 주 3회에 걸쳐 매 회당 30분씩 총 21회기로 실시하였다. 음악활동이 개입되기 전에 공격성·충동성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악활동의 개입 후 각 회기마다 목표행동을 측정하였고 음악활동이 종료된 후 공격성·충동성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2> 연구절차

절 차	기 간	내 용
사전 검사 실시	2005. 3.14~2005. 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용 공격성 측정 도구 사전 검사</li> <li>아동의 충동성 측정 도구 사전검사</li> <li>대상 아동 선정</li> </ul>
초기단계 (1~3회기) 발전단계 (4~7회기) 축진단계 (8~14회기) 종결단계 (15~21회기)	2005. 3.21~2005.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활동 개입 후 목표행동발생을 빈도기록법으로 측정(초기~종결단계까지)</li> </ul>
사후 검사 실시	2005. 5. 9~2005.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용 공격성 측정 도구 사후 검사</li> <li>아동의 충동성 측정 도구 사후검사</li> <li>음악활동 종료 후 아동의 목표행동 발생 측정을 데이터화하고 질적으로 관찰</li> </ul>

#### 4. 측정도구

##### (1) 교사 평정용 공격성 측정 도구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측정방법은 Dodge(1980)가 어린이 공격성 연구에서 사용한 다섯 문항을 광금주(1992)가 다소 수정하여 만든 교사가 평가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체 문항수는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96이다.

##### (2) 충동성 측정 도구

충동성은 이현수(1985)가 번안한 Eysenck(1984)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조해연(2001)과 이주식(2003)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대상아동에게 직접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문항을 채택하여 사전검사 하였다. 총 16개의 설문 문항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측정문항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값은 .90으로 안정적이다.

##### (3) 행동기록 체크 리스트

음악활동 개입 후 아동의 공격행동의 측정은 음악활동 안에서 관찰되어지는 목표행동을 비디오 녹화자료를 통하여 주 3회 30분씩 21회 동안 한명의 관찰자와 같이 빈도수 기록법으로 음악활동 시간 30분 동안에서 연속된 타악기 활동 20분을 관찰하여 대상 아동의 목표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빈도수를 행동 체크리스트의 해당 부분에 횟수로 체크하여 측정하였다. 목표행동으로는 <표-3>과 같이 본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3> 목표행동

목표행동	조작적 정의
음악활동 안에서 보여지는 부적절한 과잉행동	①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충동적인 행동 ②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옆 사람에게 시비걸며 신체적 접촉을 부적합하게 하는 행동

또한 관찰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관찰자 외 사전 교육된 한명의 보조 교사가 비디오 녹화자료를 통하여 목표행동 관찰측정에 들어갔다. 본 연구의 목표행동의 횟수 측정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5% 에서 99% 를 나타냈다.

#### 5. 연구자료 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위한 단일 대상연구이며 교사를 통해 사전-사후 공격성 측정 검사를 하였고 충동성 사전-사후의 검사와 함께 아동의 공격성 행동발생의 변화를 양적, 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의 음악활동 초기, 발전, 촉진, 종결단계의 전 회기에 걸쳐서 비디오카메라(Sony Handycam:CCD-TRY67)로 녹화하고 빈도 기록법을 사용하여 대상아동들의 목표행동을 관찰자와 함께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의 음악활동

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 변화를 알아본 후 목표행동의 발생빈도수에 대하여 전체 세션의 치료 초기(1~3회기)와 후기(19~21회기)를 그래프 화하여 비교하고 그 경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공격성과 충동성 척도에 의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문제 행동의 변화를 점수로 비교하였다. 각 아동의 목표행동에 대한 변화 양상에 있어서는 음악활동 안에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아동의 행동변화를 단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질적인 관찰을 하였다.

## 6. 음악활동 프로그램 구성

### (1) 음악활동의 치료적 근거

음악 활동에서 악기들은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이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활용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음악적 표현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은 물론 음악을 만드는 경험의 깊이와 질을 한층 더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여러 종류의 악기들 중 타악기의 다양한 음색을 체험하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에너지를 표출하고 그로인해 긴장이완과 과잉행동의 조절을 음악활동에서 접하게 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치료적으로 접근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악기를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 음악치료에 사용된 타악기

전통 타악기	징, 북, 장구, 소고
서양 타악기	실로폰, 핸드 벨, 톤 차임, 레조네이트벨,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우드블록,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클라베, 리듬스틱, 귀로, 카바사, 탬버린, 스네어 드럼, 봉고, 키즈드럼, 패들드럼, 셰이커류

본 연구자는 아동의 목표행동 변화를 보기위해서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구성으로는 개인 세션보다는 소그룹 음악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음악활동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은 <표-5>와 같다.

<표-5> 음악치료 시간 구성과 활동 내용

단계	세션시간	Activity	활동내용	목표
도입	도입활동5분	Hello Song	인사노래로 음악세션 시작을 알리고 하루 시작의 기분을 물으며 진행	치료사 및 동료와의 라포형성
전개	전개활동20분	Music Activity	다양한 타악기 연주활동을 통한 에너지표출에서 과잉행동조절로의 단계적 접근	에너지표출과 긴장이완, 과잉행동조절 및 정서적 안정감
정리	정리활동5분	Goodbye Song	세션에 대한 소감과 헤어짐 노래 부르기	자기표현의 향상



## (2) 음악활동 프로그램 목표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타악기 연주활동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타악기 연주활동으로 인해 카타르시스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이완과 정서적 안정으로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표-6>과 같다.

<표-6>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 계	치 료 목 표	치 료 방 법
초기단계 (1~3session)	아동과 치료사와의 관계형성	악기탐색 및 경험
발전단계 (4~9session)	카타르시스의 효과 및 긴장이완	전통 타악기 활동을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
촉진단계(10~15session)	감정통제와 과잉행동 조절 및 대인관계 향상	다양한 타악기활동의 단계적 적용을 통한 감정통제 및 과잉행동 조절
종결단계(16~21session)	공격적 행동의 감소 및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자유로운 타악기 활동을 통한 공격적 행동의 감소와 정서순화

## (3) 음악활동 프로그램 전개

### 가) 초기단계(1~3session)

#### ① Session 1. 인사노래와 헤어짐 노래를 통한 관계형성

- i) Goal : 치료사와의 라포형성 및 동료와의 친밀감 형성
- ii) Activity : 인사노래와 헤어짐 노래를 배우고 타악기로 느낌 표현하기
- iii) 치료적 근거: 인사노래와 헤어짐 노래를 알려주면서 음악치료의 시작과 마침을 인지시킨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치료사와 인사하고 동료와 악수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줌으로써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② Session 2. 다양한 타악기 탐색하기

- i) Goal : 악기탐색 및 치료사와의 라포형성, 악기경험을 통한 흥미유도
- ii) Activity : 다양한 타악기의 소리 체험하기와 악기로 느낌을 표현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다양한 타악기를 소개하면서 악기탐색의 시간을 갖게 한다. 치료사의 설명으로 여러 타악기의 소리를 듣고 악기를 다루는 방법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사와의 관계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동료의 악기소리를 들어주고 서로 악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료관계에 친밀감이 형성된다. 각자 원하는 악기를 고르게 하여 피아노 반주에 맞춰 자신의 차례에 악기를 소리를 내게 함은 악기탐색에 이어 악기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 ③ Session 3. 요일노래를 통한 악기경험 및 현실인식

- i) Goal : 현실 인식 및 사회성 향상, 자기표현력 증진
- ii) Activity : 요일 노래에 맞춰 다양한 타악기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오늘의 요일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인지시키게 되며 서로 날짜이야기를 함으로써 동료와의 관계형성 및 표현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피아노 선율에 따라 악기를 탐색하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사와의 관계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요일 노래 4분의 2박자의 간단한 멜로디 안에 각자 파트를 주어 자신의 차례에 소리를 냄으로써 악기소리를 체험하고, 악기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파트를 연주함은 동료와의 관계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악기의 경험은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서로의 악기소리를 듣고 연주함으로써 사회성 향상을 가져다준다.

#### (나) 발전단계(4~9session)

### ① Session 4. 전통 타악기 장구를 이용한 장단치기

- i) Goal : 장구 장단을 통한 에너지 표출 및 집중력 향상
- ii) Activity : 인사굿 놀이와 장구장단 익히기
- iii) 치료적 근거 : 장단을 익히면서 서로의 악기소리를 들어주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치료사와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며, 장구 장단을 익히는 과정에서 장구 치는 법과 구움에 집중하게 되므로 활동의 과잉을 줄일 수 있다. 아동이 직접 장단을 지어보고 그 장단을 장구로 표현하게 하여 에너지 표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장단치기 >**

**1. 인사굿 놀이(인사노래구름)**

뎡	뎡		뎡	뎡		더더	뎡	뎡	뎡		딱
안	녕		안	녕		선생	님	안	녕		
안	녕		안	녕		친구	들	안	녕		

**2. 세마치 장단**

①			①		I	○	I	
뎡			뎡		덕	쿵	덕	

**3. 굿거리 장단**

①		I	○	...		○		I	○	...	
뎡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 ① 뎡 :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친다.
- I 덕 : 채로 채편(오른쪽)을 친다.
- 쿵 : 손으로 북편(왼쪽)을 친다.
- i 기덕 : 채로 채편을 겹쳐 친다.
- | 더러러러 : 채로 채편을 굴러 친다.

**② Session 5. 전통 타악기 장구를 이용한 장단놀이**

- i) Goal : 에너지 표출 및 긴장이완
- ii) Activity : 인사굿 놀이 와 떡 장단 놀이
- iii) 치료적 근거 : 장구의 연이은 활동은 아동에게 익숙한 악기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아동에게 한 악기에 대한 친근함으로 자신감을 줄 것이다. 장구의 장단은 구음을 반복하면서 쉽게 인지된다. 따라서 동료와 일체감으로 장단을 치는 것은 에너지를 표출하게 해주며 그로인한 긴장이완의 효과를 가져온다. 구음을 재미있는 가사로 바꾸게 함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만든 가사를 불러보고 다 같이 연주하는 것은 동료와의 관계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Session 6~7. 전통 타악기 장구와 북, 징을 이용한 장구놀이 I II**

- i) Goal : 에너지 표출 및 자기표현력 향상
- ii) Activity : 장구놀이 장단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장구놀이의 장단은 인사 굿부터 굿거리장단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의 흥을 돋구어준다. 강약의 변화를 주어 역동적인 리듬감으로 다 같이 장구를 칠으로써 아동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박자를 빨리하여 에너지 표출을 이끌어낸다. 반복된 훈련으로 아동은 자신감이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한 자기표현이 향상되어질 것이다.

**④ Session 8~9. 전통 타악기 장구와 북, 징을 이용한 초등 사물놀이 I II**

- i) Goal : 감정 통제력 향상과 성취감 향상
- ii) Activity : 사물놀이 장단
- iii) 치료적 근거 : 장구놀이에 이어 사물놀이 장단은 하나의 작품완성이라는 성취감을 줄 것이다. 반복된 훈련으로 아동은 악보 없이 장단을 인지하게 된다. 또

한 강약을 주어 역동적인 체계를 이끌며 에너지 표출과 더불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하여 감정 통제력을 길러 준다. 북과 장구, 징의 조화로 서로의 소리를 듣게 하여 관계형성을 유도한다.

(다) 촉진단계(10~15session)

① Session 10. 전통 악기 북을 이용한 난타리듬 연주 I

- i) Goal: 북을 통한 에너지 표출과 집중력 향상
- ii) Activity : 기본 난타 리듬 연주
- iii) 치료적 근거 : 북을 좌대에 가로로 눕혀서 6개로 배열해줌으로써 연주활동의 폭을 넓혀주어 에너지를 크게 표출하도록 이끌 수 있다. 난타리듬은 오른손과 왼손의 협응 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주고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세 명이 일체감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악 안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박자를 빠르게 하여 점점 흥을 돋아주고 에너지 표출의 절정을 느끼게 한다.

< 난타기보법 >  
 R : 오른손으로 북채를 잡고 친다.  
 L : 왼손으로 북채를 잡고 친다.

<난타기분리듬 >

① ♩ ♩ ♩ ♩ ∨ ♩  
 R L R L ∨ L ×2

② ♩ ♩ ♩ ♩ ♩ ♩ ♩ ♩ ♩ ∨ ♩  
 R L R L R L R L R L ∨ L ×2

③ ♩ ♩ ♩ ♩ ♩ ♩ ♩ ♩ ♩ ♩ ♩  
 R L R L R L R L R L R L ×2

- 빠르기를 점점 빨리 하여 흥을 돋우어준다

② Session 11. 전통 악기 북을 이용한 난타놀이 II

- i) Goal : 에너지 표출 및 긴장이완, 행동조절 능력 향상
- ii) Activity : [곰 세 마리]와 [라 라스파]를 난타로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북을 이용한 난타리듬은 북소리와 함께 에너지 표출을 이끌어낸다. 반복된 훈련은 아동의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흥을 가지고 연주하게 한다. 에너지 표출 뒤에 피아노에 맞춰서 연주하는 난타는 정해진 박자 안에서의 행동조절을 가져오게 된다. 연주 뒤에 불러보는 노래는 악기 연주와는 다른 목소리의 경험으로 긴장이완을 불러온다.

### ③ Session 13. 실로폰 연주

- i) Goal : 집중력 향상과 과잉행동 감소
- ii) Activity : 실로폰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타악기 중에서 실로폰은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악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로폰은 아동들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악기를 다뤄보면 어려워한다. 실로폰 하나하나의 건반을 집중해서 치지 않으면 다른 음이 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요한다. 따라서 실로폰연주는 아동에게 집중해서 연주할 수 있게 만들며 활동의 과잉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양손에 채를 쥐어서 연주함은 손의 협응 능력을 길러주고 재미있는 가사 만들기 놀이는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가사를 실로폰에 맞춰 불러봄으로써 아동은 건반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④ Session 15. 핸드 벨로 도레미 송 연주하기

- i) Goal : 집중력 향상 및 눈맞춤 유도, 자신감 형성, 대인관계 증진
- ii) Activity : 핸드 벨로 도레미 송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핸드 벨은 고정된 음정이 있는 타악기로 핸드 벨의 음정과 색깔은 아동으로 하여금 흥미를 가져오게 한다. 악기와 같은 색깔의 악보를 아동에게 제시함으로써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연주하게 함으로써 눈맞춤을 유도할 수 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로의 음을 들어주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동료와 관계를 형성할 줄 알게 되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는 것은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따라와 주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라) 종결단계(16~21session)

### ① Session 17. 타악기 리듬즉흥연주

- i) Goal : 자기표현 향상 및 대인관계 증진
- ii) Activity : 타악기 즉흥연주
- iii) 치료적 근거 : 주어진 상황에서 치료사가 제시하는 것에 따름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는 리듬은 표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이 만든 리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조화로운 연주를 수행함으로써 상호교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유로운 즉흥연주로 아동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으며 자기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② Session 19. 드럼소리를 들어보자

- i) Goal : 행동의 순응 및 조절력 향상, 정서의 순화
- ii) Activity : [드럼소리를 들어 보자]에 맞춰 스네어 드럼을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드럼소리를 들어보자]는 타악기를 이용하여 크게(f)와 작게(p)의 음색을 느끼고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순응하는 행동을 이끌게 한다. 또한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연주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음악 안에서 치료사와 아동이 하나가 되도록 소리와 빠르기를 이끌어주는 것은 행동조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음악 감상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

③ Session 21. 손에 쥐는 타악기 활동

- i) Goal :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성 향상, 음악 속으로의 몰입
- ii) Activity : [체키모레나]와 [체체 쿨레이]에 맞춰 타악기 연주하기
- iii) 치료적 근거 : 음악활동의 마지막 세션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 목표를 두고 손에 쥐는 타악기 연주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체키모레나]와 [체체 쿨레이]는 외국풍의 민요로 박자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의 가사와 단순한 가락으로 아동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아동이 가사내용에 맞춰 치료사의 울동을 따라함으로써 릴렉스와 함께 사회성 향상을 가져오며 행동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 손에 쥐고 치는 타악기를 치료사가 지시하는 부분에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음악에 집중하게 해주며 음악 안에 구조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국가사에 맞춰 다함께 노래 부르며 타악기 연주하기는 아동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며 그로 인한 정서적 안정과 순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 과**

A. 양적 분석결과

1.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도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가) 사례 A

대상 A의 음악활동 개입 전-후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는 <표-7>과 같다. 음악활동 개입 전보다 개입 후의 공격성 점수는 19점에서 16점으로 충동성 측정 점수도 65점에서 50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대상 A의 공격성과 충동성 모두 음악활동 개입 전 보다 개입 후에 줄어든 것임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7> 대상 A의 사전-사후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

대상 A	공격성	충동성
음악활동 개입 전	19	65
음악활동 개입 후	16	50

대상 A의 사전-사후의 공격성과 충동성의 변화를 비교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표 7>.

(나) 사례 B

대상 B의 음악활동 개입 전-후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는 <표-8>과 같다. 대상 B는 음악활동 개입 전보다 음악활동 개입 후의 공격성 점수가 23점에서 19점으로 충동성은 70점에서 59점으로 낮아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상 B의 공격성과 충동성이 음악활동 개입 후 모두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8> 대상 B의 사전-사후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

대상 B	공격성	충동성
음악활동 개입 전	23	70
음악활동 개입 후	19	59

대상 B의 사전-사후의 공격성과 충동성의 변화를 비교하면 공격성과 충동성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표-8>.

(다) 사례 C

대상 C의 음악활동 개입 전-후의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는 <표-9>와 같다. 대상 C는 음악활동 개입 전보다 음악활동 개입 후의 공격성 점수는 21점에서 18점으로 충동성 점수도 56점에서 42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대상 C의 공격성과 충동성이 음악활동 개입 후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9> 대상 C의 사전-사후 공격성과 충동성 측정 결과

대상 C	공격성	충동성
음악활동 개입 전	21	56
음악활동 개입 후	18	42

대상 C의 사전-사후의 공격성과 충동성의 변화를 비교하면 공격성과 충동성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9>.

## 2. 목표행동 발생빈도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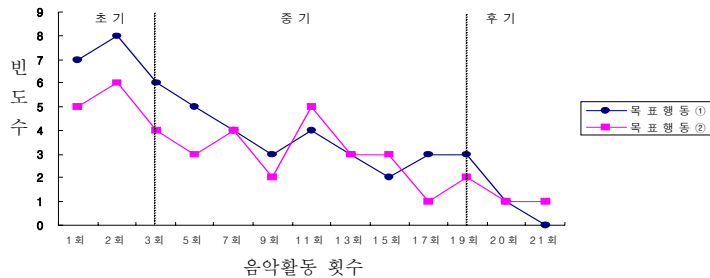
### (가) 사례 A

대상 A의 음악활동 개입 후 목표행동의 변화는 치료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목표행동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목표행동의 발생빈도의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대상 A의 목표행동에 대한 비디오 분석 결과

A	1회	2회	3회	5회	7회	9회	11회	13회	15회	17회	19회	20회	21회
목표행동 ①	7	8	6	5	4	3	4	3	2	3	3	1	0
목표행동 ②	5	6	4	3	4	2	5	3	3	1	2	1	1

대상 A의 <표-10>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변화를 그래프 화하면 <그림-4>와 같으며 치료초기 보다 후기로 갈수록 그래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료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대상아동의 목표행동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세션 11회기를 보면 목표행동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1회기의 복을 이용한 난타활동에서 대상 A가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며 옆 사람에게 시비거는 과잉행동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4> 대상 A의 목표행동의 발생 빈도

대상 A의 <표-10>에 제시된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치료초기와 후기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11>과 같다.

<표-11> 대상 A의 치료초기와 후기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A	초기	후기
목표행동 ①	21	4
목표행동 ②	16	4



대상 A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치료초기와 후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치료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빈도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목표행동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다<표-11>.

**(나) 사례 B**

대상 B의 음악활동 개입 후 목표행동의 변화는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치료초기와 후기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보면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적합 신체적 행동의 발생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며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행동 역시 초기보다 후기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B의 목표행동의 발생빈도의 결과는 <표-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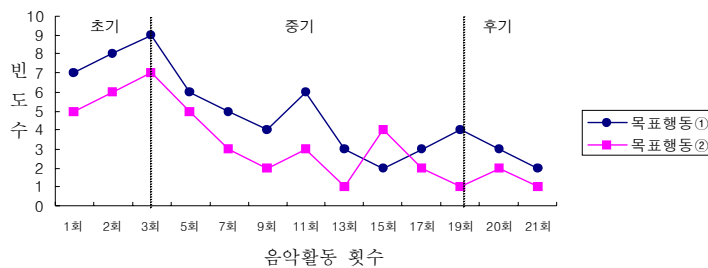
<표-12> 대상 B의 목표행동에 대한 비디오 분석 결과

B	1회	2회	3회	5회	7회	9회	11회	13회	15회	17회	19회	20회	21회
목표행동①	7	8	9	6	5	4	6	3	2	3	4	3	2
목표행동②	5	6	7	5	3	2	3	1	4	2	1	2	1

대상 B의 <표-12>에서 보여 지는 치료초기와 후기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변화를 그래프 화하면 <그림-6>과 같으며 이는 아동의 목표행동이 치료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세션 11회기를 보면 목표행동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11회기의 복을 이용한 난타활동에서 대상 B가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충동적인 행동과 옆 사람에게 시비거는 과잉행동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상 B의 <표-12>에 제시된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치료초기와 후기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13>과 같다

<표-13> 대상 B의 치료초기와 후기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B	초기	후기
목표행동 ①	24	9
목표행동 ②	18	4



<그림-6> 대상 B의 목표행동의 발생 빈도

대상 B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치료초기와 후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치료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목표행동의 빈도수가 감소함을 나타낸다<표-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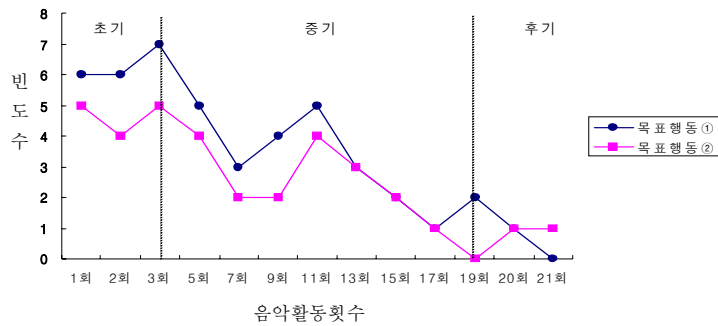
(다) 사례 C

대상 C의 음악활동 개입 후 목표행동의 변화는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치료초기부터 후기의 발생 빈도수를 살펴보면 11회에서 21회기 사이에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약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행동과 신체적 접촉을 부적합하게 하는 행동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C의 목표행동의 발생빈도의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14> 대상 C의 목표행동에 대한 비디오 분석 결과

C	1회	2회	3회	5회	7회	9회	11회	13회	15회	17회	19회	20회	21회
목표행동①	6	6	7	5	3	4	5	3	2	1	2	1	0
목표행동②	5	4	5	4	2	2	4	3	2	1	0	1	1

대상 C의 <표-14>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변화를 그래프 화하면 <그림-8>과 같으며 이는 아동의 목표행동이 치료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감소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세션 11회기에서는 아동의 목표행동이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1회기의 북을 이용한 난타 활동에서 대상 C가 활동 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약기를 때리거나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목표행동 발생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8> 대상 C의 목표행도의 발생 빈도

대상 C의 제시된 <표-14>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초기와 후기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15>와 같다

<표-15> 대상 C의 치료초기와 후기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

대상 C	초기	후기
목표행동 ①	19	3
목표행동 ②	14	2

대상 C의 목표행동 발생 빈도수의 치료초기 빈도수와 후기 빈도수를 비교 하였을때 치료 초기보다 후기에 목표행동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15>.

## B. 질적 분석결과

질적 관찰 내용은 본 연구자가 대상아동의 양적 분석 결과 자료를 토대로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입 후의 공격적 행동 변화를 비디오 녹화자료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관찰 기술하였다. 또한 음악활동 안에서의 자기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였다.

### 1. 공격적 행동의 변화

#### (가) 사례 A

초기단계에서 대상 A는 음악활동 시작 전부터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료와 자리다툼을 자주 하였으며 음악활동 시작 후에도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동료에게 시비 거는 행동이 자주 발생하였다. 발전단계에서 대상 A는 장구와 북의 활동에 집중하며 음악 안에 몰입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그로인해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악기를 던지거나 때리는 충동적인 행동과 동료와의 부적합한 신체적 접촉 등의 공격적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음악활동의 기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촉진 단계와 종결단계로 갈수록 핸드 벨과 톤 차임 등을 이용한 타악기활동에서 대상 A는 동료와 상호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 (나) 사례 B

대상 B는 초기단계부터 공격적 행동이 자주 관찰 되었다. 초기단계에서 보여진 대상 B의 행동양상은 악기를 던지거나 때리는 과잉행동이 심하였고 음악활동 안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짧았으며 옆 동료와 다툼도 많았다. 발전단계와 촉진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상 B는 타악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그로인해 과잉행동이 감소함을 보였다. 종결단계로 가면서 대상 B는 동료와의 상호교류로 인해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 길게 관찰되었다.

### (다) 사례 C

대상 C의 음악활동 관찰결과는 치료초기부터 후기로 진행되면서 공격적 행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단계에서 대상 C는 행동 상 큰 공격성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동료가 다툼을 걸면 대응하는 면에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였다. 또한 대상 C는 악기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부적인 태도를 자주 보였다. 발전단계와 촉진단계에서 대상 C는 악기활동을 따라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점차적으로 보였고 자기표현에 있어 적극적으로 감정을 나타내었다. 종결단계에서 대상 C는 동료와 음악적으로 상호 교류하며 악기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2. 감정상태의 변화

공격성 아동들은 자기표현에 있어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표현력이 부정적이고 단순하여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아동들은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악기연주 후, 자신의 감정상태와 기분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결과 음악 활동 안에서의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감정의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감정상태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각 대상아동들의 회기별 감정상태의 변화를 자기표현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 (가) 사례 A

대상 A의 자기표현은 <표-16>과 같다. 대상 A는 세션 1회에서 치료 초의 어색함으로 표현의 소극적임을 보였으나 전통 타악기를 이용한 활동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에너지 표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라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타악기활동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감정상태로 대상 A의 자기표현은 타악기활동을 통한 카타르시스 효과를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질적 분석의 결과는 공격성 감소라는 행동변화의 양적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표-16> 대상 A의 자기표현 내용

A	자기표현 내용
1회기	몰라요
2회기	모르겠어요.
3회기	재미가 조금 있으려는 기분이다.
5회기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7회기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거..아니 해소되는 거 같아요.
9회기	시원해요
11회기	어려워요 하지만 속이 후련해요
13회기	좋았어요.
15회기	핸드 벨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17회기	재미있었어요. 피아노로 쳐보고 싶어요.
19회기	드럼을 치고 나니깐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21회기	노래가 재미있어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요

(나) 사례 B

대상 B의 타악기 활동 개입 후 감정상태의 자기표현은 <표-17>과 같다. 대상 B는 ‘그럭저럭’이라는 단조로운 표현으로 일관하다가 타악기 연주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나타냈다. 대상 B는 특히 장구활동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다는 표현을 자주하여 장구활동에서의 공격성 감소라는 양적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17> 대상 B의 자기표현 내용

B	자기표현 내용
1회기	뒤죽박죽
2회기	그럭저럭
3회기	말 안 할래요
5회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아요.
7회기	속이 후련해요
9회기	화가 풀려요
11회기	그럭저럭
13회기	상큼해요
15회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해요. 5월 말까지 계속해요
17회기	신나요
19회기	또 치고 싶어요.
21회기	저도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해요.

(다) 사례 C

대상 C는 악기활동에 있어 공격성 감소라는 양적결과와 함께 표현에 있어서도 향상을 보여준다. ‘옆 사람과 같아요’ 라는 소극적인 표현에서 ‘아쉽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게 되었고 타악기 활동으로 시원하다는 감정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카타르시스 효과로 인한 공격성 감소의 양적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상 C는 <표-18>과 같이 자기표현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표-18> 대상 C의 자기표현 내용

C	자기표현 내용
1회기	모르겠다.
2회기	(동료를 가리키며) 재랑 같아요.
3회기	그냥 웃어 보임
5회기	스트레스 해소 되는 것 같아요.
7회기	신나요
9회기	재미있었어요. 시원해요
11회기	힘들어요.
13회기	가사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15회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17회기	장구 또 했으면 좋겠어요.
19회기	새로운 느낌이에요.
21회기	노래가사가 웃겨요 오늘 정말 끝이에요? 아쉬워요

## 결론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 대한 결론은 공격성 아동을 위해 실시된 공격성과 충동성 사전 검사와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 개입 후 사후 검사의 결과는 사례아동 세 명 모두 공격성과 충동성 척도의 감소를 보여 주었다. 이는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사례아동의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 기간에 사례아동의 목표행동 발생 횟수를 빈도 기록법에 의해 측정 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치료초기와 후기를 비교해 본 결과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악기를 때리거나 던지는 충동적인 행동과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부적합하게 하는 행동이 사례아동 세 명 모두 치료초기 보다 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이 대상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감소에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 세션에서 보여진 관찰에 의하면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공격성 아동의 에너지 표출과 그로인한 신체적 긴장이완과 감정통제와 행동조절 능력의 향상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이라는 치료목표에 접근하여 그 치료적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즉 행동변화에 있어서 아동은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다가 차츰 치료사에 순응하며 음악 활동 안으로 몰입하는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타악기 활동을 통해 다른 동료와의 상호교류의 경험으로 사회성 향상과 그로인해 행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감정상태의 변화에서는 에너지 표출을 타악기로 표현하며 음악활동으로 인한 카타르시스의 경험과 그로인한 긴장이완의 상태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화가 풀렸다는 등의 자기표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타악기 중심의 음악활동은 공격성 아동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를 표출하기에 치료적 매개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를 준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기의 공격성 또한 이러한 학교의 영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음악치료를 학교 안에서의 교육적 측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아동기 공격성에 예방차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과 연관되어진 교육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되어지도록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연구이므로 일선 학교에서도 아동의 능력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 효과를 보여준 타악기 중심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측면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한다면 아동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적 차원에서는 공격성 아동을 위해 타악기외의 클라리넷이나 플룻과 같은 관악기를 이용하여 호흡을 배출하는 기분을 감정의 표출로 이끌어 주는 다양한 악기활용과 노래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격성 아동의 내재된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이끌어 주어 정서적 안정과 공격적 행동 변화 등의 치료적 효과에 접근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공격성 아동과 기질적 특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인지적 측

면에서의 연구도 관심 있게 다루고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격성 아동에게 적합한 다양한 음악활동의 치료 프로그램 모델의 후속연구가 활발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과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인대상으로 음악치료의 영역을 넓혀 공격성 연구에 대한 치료적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고미영 (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6권 제 1호, p 51-75.
- 곽금주 (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진 (1997). 음악치료학의 이해, 음악과 민족 13, 민족음악학회.
- 김태련·염현경 역(1994).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혜정 (1992). 국민학생의 충동성-사려성, 인기도 및 학습관련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경아 (1995). 적극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승원 (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진 (2002). 집단음악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 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식 (2003).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몰입 및 현실지각 수준에 따른 인성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수 (1985). 성격차원검사,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장호정 (2001). 집단음악 활동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선 (2002). 타악기 연주 훈련이 중도 발달 장애아의 감각 · 운동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윤 (2004). 무용교육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혜연 (2001).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특성변인 연구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공격성,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ronson, E. (1980). *The social animal(3rd ed)*, San Francisco : W. H. Freeman.
- Boxill, E. H.(1985). *Music Therap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Rockvills, MD: An Systems Corp.
- Coie, & Kuperlmidt.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Feshbach, R. D.(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FL: John Wiley and Sons Co.
- Merriam, A. P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Chicago, IL : Northwest University Press.
- Patterson, C. J., & Mischel, W. (1976). Effects of temptation 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09-217.
- Patterson, G. R.(1979). Treatment for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 A review of outcome studies, *Aggression and behavior change: Biological and social processes* 83-138.
- Robins, L. N.(1979). Follow-up studies. In H.C. Quay & J.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 of Childhood*(pp483-513).
- Session, Roger (1981). *The Musical Experience of Composer Performer, Listener*.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